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4. 4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표지 사진 • 회원

한 사람의 맑고 조촐한 삶은
그 자신이 의식을 하건 말건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달빛 같은 혹은 풀 향기 같은
은은한 그늘을 드리우게 마련입니다.

– 법정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시다.

2014 / 4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화개동에서 햇차를 맛보다
처음 마음으로	08	평상심(平常心)이 도(道)
책 속의 책	14	걷기예찬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	16	아름다운 마무리 4월의 결연 대상자 – 이석연 어르신
동전모금 캠페인	18	노인이 웃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동전모금 캠페인」
천진난만	20	빈자일등(貧者一燈)
자비의 등을 밝히세요	21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사색의 뜰	22	실크로드의 도시 로마로 팔려간 조선인 노예를 기억하자
참 좋은 문화 길라잡이	25	가슴 아린 시들
샌디에고 암탉	30	뜰에서 배운 교훈
내 마음속 풍경	32	집안 제사 절에 모신 친정엄마의 뜨거운 눈물
참교육 이야기	36	무상교육에 사교육도 경쟁도 등수도 없는 나라? 우리는!
한국불교전설	40	소금 만드는 노인 〈고창 · 선운사〉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4	중앙모임 소식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4년 4월 1일 발행 / 통권 230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화개동에서 햇차를 맛보다

글 • 법 정(法 頂)

내가 기대고 있는 이 산골은 일 년 사계절 중에서 봄철이 가장 메마르고 삭막하다. 2월에서 5월에 이르기까지 산골짝에 내려 꽂히면서 회오리를 일으키는 영동 산간지방 특유의 바람 때문에 부드러운 봄기운을 느낄 수가 없다. 이 고장 사람들의 무표정하고 건조한 때로는 무지막지한 인심이 이런 바람에 연유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주로 남녘에서 살아온 나는, 해안선을 따라 올라오는 바닷바람에 섞인 봄기운과 산자락을 굽이굽이 휘감고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에 익숙하다. 그러기 때문에 산골짝을 훑으며 휘젓는 거친 회오리는 낯설기만 하다. 3,4월은 오두막을 자주 비우고 남쪽으로 떠도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엊그제는 지리산 자락에 있는 다원(茶園)을 여기저기 어슬렁거렸다. 곡우절을 전후한 요즘이 한창 첫물 차를 딸 때다.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차나무를 심고 가꾸어 온 연고지답게, 쌍계사가 있는 화개동 일대에는 근래 많은 차밭이 조성되어 있다. 40여 년 전 내가 이 골짝에서 살 때는 야생 차나무 외에 다원은 따로 없었다. 그 무렵에는 절에서 차를 마시는 스님들도 아주 드물었다. 요즘에 견주어보면 말 그대로 금석지감(今昔之感)이 든다.

경사진 차밭에서 삼삼오오 아주머니들이 흰수건을 쓰고 차를 따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그 어떤 일보다도 보기 좋은 풍경이다. 차를 따는 그 모습이 결코 노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저만치서 바라보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차밭에 내려와 진양조 가락에 너울너울 춤을 추는 것 같다.

야생차라고 해서 다 좋을 수는 없다. 차나무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육에 따른 알맞은 토양과 기상이 받쳐주어야 제대로 된 맛과 향기와 빛을 지닐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차의 산지에 가서 보면 기온차가 심한 고지에서 생산된 차를 으뜸으로 친다.

동인도 다질링에서는 표고 9백에서 2천 4백 미터의 고지에서 차를 수확한다. 해발 8천 6백 미터의 칸첸중가 히말라야, 장엄한 설산을 배경으로 차를 따고 있는 모습은 이 세상 풍경 같지 않다. 나는 몇 해 전 그곳을 여행하면서 차 따는 풍경을 하루 종일 바라보았다. 설산 앞에서 안복(眼福)을 누리던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풋풋하게 간직되어 있다.

그곳에서는 주로 홍차를 만드는데, 차의 수확기간이 1년 중 약 2백 일이다. 이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고급차는 봄 여름 가을 중에서도 각기 10일 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채취된 어린잎으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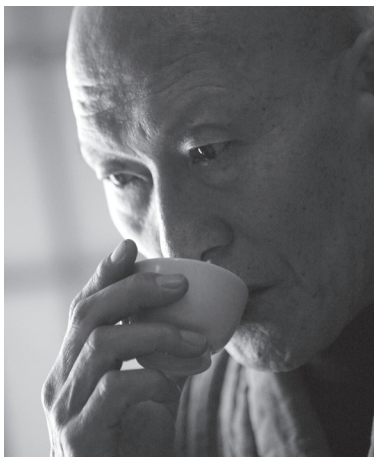
뉴델리의 네타지 수바쉬 거리에 있는 '압 키 파산드(Aap Ki Pasand)'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고급 홍차 판매점이다. 이 가게에 있는 차 감정인은 와인의 세계에서 말하는 와인 테이스터와 비교할 만하다. 이 가게에서는 고급 홍차만을 선별해 놓았는데 그 종류와 브랜드가 아주 다양해서 20여 종이나 된다.

가게 주인이 가장 향기로운 차로 권한 '스프링 버드(Spring Bird)'는 그 맛과 향기에 눈이 번쩍 띄었다. 아하, 이게 바로 히말라야의 맛이요, 향기로구나 싶었다. 내 생애 중에서 처음으로 마주친 좋은 홍차였다.

이런 차는 아무 것도 가미하지 않

고 스트레이트로 마셔야 한다. 우리가 익숙하게 마시는 향기로운 녹차에 가까운 맛이다. 뉴델리에 가면 이 가게만은 꼭 다시 들르고 싶은 그런 찻집이다.

10년 전 처음으로 인도 대륙에 발을 딛고 두어 달 남짓 나그네 길에서 지칠 대로 지친 끝에 인도양의 진주라고 하는, 혹은 눈물방울이라고도 하는 스리랑카에 갔었다. 실론티의 산지로 유명한 '누아라 에리아'는 해발 1천 5백 고지에 있다. 경사진 차밭은 잘 가꾸어진 정원처럼 아름답다. 산중턱은 거의 차밭으로 가꾸어졌는데 정상으로 올라가니 굽이굽이마다 검은 피부색을 한 여인들이 무리지어 차바구니를 메고 차를 따고 있었다. 그때 처음 본 풍경이라 두고두고 인상적이었다.



그때 한 제다공장에 들렀는데, 때마침 차잎을 말리는 그 구수한 차향기가 어찌나 좋던지, 인도 평원에서 지친 심신에 생기가 돌았다. 긴 항해로 멀미를 하다가 육지에 닿아 흙향기를 맡았을 때의 그런 느낌이었다.

화개동에는 차밭만이 아니라 차와 다기를 파는 가게가 줄줄이 이어져 있다. 차 고장다운 풍물이 아닐 수 없다. 몇 군데 기웃거리면서 햇차 맛도 보고 다기 구경도 했는데, 대부분 차를 건성으로 마시는 것 같았다. 아무리 좋은 차일지라도 다루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차가 그 맛을 제대로 낼 수 없다. 모처럼 마시는 귀한 햇차인데 그 맛은 한결같이 맹탕이었다.

차의 덕이 맑고 고요함(淸寂)에 있다면 차를 다루는 사람 또한 그런 기품을 지녀야 차맛을 제대로 낼 수 있을 것이다.

차를 마시려면 거기에 소용되는 그릇이 필요하다. 가게마다 다기들로 가득가득 쌓여 있지만 눈에 띄는 그릇을 만나지 못했다. 대부분 차를 모르는 사람들의 손으로 빚어진 그릇들이기 때문이다.

차를 마시기 위해 그릇이 있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그릇의 아름다움이 차를 마시도록 이끌기도 한다. 그릇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은 마음에 맑음과 고요를 구하는 것과 같다.

차를 건성으로 마시지 말라. 차밭에서 한 잎 한 잎 따서 정성을 다해 만든 그 공을 생각하면서 마셔야 한다. 그래야 한 잔의 차를 통해 우리 산천이 지닌 그 맛과 향기와 빛깔도 함께 음미할 수 있다.

– 오두막 편지 중에서

2014년 '맑고 향기롭게 · 길상화 장학생' 선정 및 장학증서 수여식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 고등학생들에게 지원되는 2014년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오는 4월 18일(금) 오후 2시 30분에 마련됩니다. 길상사내 소강당에서 거행될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성북구, 강북구, 불교종립학교에서 추천받은 학생과 사회복지사, 지역모임 사무국, 회원들께서 추천하신 학생들로 선정되었으며, 장학생에게는 한 해 동안의 수업료와 학교운영회비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본모임 창립 후 2013년까지 483명의 장학생에게 6억 7,000여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으며, 올해도 30여 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 **장학생 선정 발표** : 2014년 4월 4일(금)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장학증서 수여식** : 2014년 4월 18일(금) / 길상사 소강당

평상심(平常心)이 도(道)

글 • 덕 운(德耘)

마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도는 닦는 것이 아니니 다만 오염시키지 말 것이니라. 어째서 오염이 되었느냐? 다만 생사(生死)의 마음이 있어서 조작하고 취향하는 것이 모두가 오염이다. 만약 그 도(道)를 알고자 할진대 평상심(平常心)이 곧 도(道)이다. 어떤 것을 평상심(平常心)이라고 말하는가? 조작이 없으며 옳고 그른 것이 없으며 취하고 버리는 것이 없으며 단견과 상견이 없으며 범부와 성인도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경(經)에 말씀하시기를 범부의 행(行)도 성현의 행(行)도 아닌 것이 바로 보살행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마조 스님은 당나라 시대의 뛰어난 선승으로서 남악 회양 스님의 제자입니다.

여기서 마조 스님은 좀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는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조 스님께서도 처음에 불문(佛門)에 들어왔을 때 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셨기 때문에 무조건 앉아서 닦으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온종일 앉아계셨습니다. 남악 회양 스님께서 마조 스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려고 그 앞에서 벽돌을 갈았습니다.

마조 스님이 묻습니다.

"스님, 벽돌을 갈아서 무엇에 쓰려고 하십니까?"

회양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니 마조 스님께서 "스님, 벽돌을 갈아서 어찌 거울이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당연히 벽돌을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을 갈아도 거울을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양 선사께서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다면 좌선만 해서 어찌 부처를 이루겠느냐?" 라고 말씀하심에 마조스님은 바로 알아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난 후 마조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는 닦을 것이 없다. 다만 오염시키지만 말라."

이것이 바로 불법의 요체이면서 최상승법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순수하고 청정한 것이 도의 자리이고 본래의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닦으려고 조작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염시키지 않고 본래 청정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대로만 간직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선가귀감〉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정법(正法)을 구하는 것과 열반(涅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삿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범부와 성인의 마음을 떠나서 조작하거나 더럽히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능엄경〉 4권에 보면 부루나 존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청정본연(淸淨本然)한데 운하홀생산하대지(云河忽生 山河大地) 아?"

이 말은 청정본연한데 어찌하여 산하대지가 생겼습니까? 하고 묻는 말입니다. 이는 즉 본래의 마음자리는 청정본연해서 텅텅 비고 지극히 깨끗한데 어째서 이런 오염의 세계, 즉 삼계가 벌어지고 산하대지가 왜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루나가 이렇게 물

은 것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하나하나 분석해가면서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말씀하셨지만, 마조 스님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생사심(生死心)으로 조작하고 취향하기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생사심이란 바로 생멸심(生滅心)을 말합니다.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며 또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조작하고 취향(趣向)하기 때문에 오염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루 종일은 고사하고라도 잠깐 동안에라도 별의별 생각 즉 좋고 나쁜 모든 생각이 다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기서 선은 취하고 악을 버리는 것을 취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선과 악을 취하는 마음을 다 놓아버리라는 말입니다.

한여름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불나방들은 불빛을 탐하여서 제 죽을 줄 모르고 뛰어들어 타죽게 됩니다. 어리석은 중생들도 불나방처럼 생사의 업을 지어서 스스로 생사의 세계로 들어가 괴로움을 받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취향으로 인한 집착 때문인 것입니다.

마조 스님이나 남전 스님, 조주 스님까지도 평소에 평상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반 중생들은 평상심이라고 말하면 평소에 망상이나 피우고 헛된 생각을 품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닦으려고도 하지 않고 계(戒)도 무시해 버리고 공부할 것도 없다는 잘못된 소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道)를 닦는 사람들은 구(求)하는 마음 없이 닦아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서 다 놓아버리고 물건에 대한 집착도 놓아버리고 몸도 놓아버려야 합니다. 치구하는 마음으로 도를 닦으면 잘못하면 신이 들리거나 정신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인연을 놓아버린 상태에서 도를 닦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치구심을 가지고 도를 닦으면 사도(邪道)가 되어서 도깨비에게 홀리거나 귀신이 붙어서 점이나 치고 정신이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도(道)는 지혜롭게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발심자경문〉에 보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 도(道)를 닦는 것은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으려 하는 것과 같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도를 닦는 것은 쌀로 밥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견(正見)의 지혜를 가지고 도(道)를 닦는 사람은 분명히 성불하지만, 지혜 없는 사람이 도를 닦는 것은 무량겁을 닦아도 성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도가 되고 마구니의 권속이 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상심(平常心)은 남한테 드러내려는 조작심(造作心)이 없고, 옳고 그른 시비(是非)도 없으며, 선악을 취하고 버리는 것도 없고, 단상(斷想)도 없습니다.

또 범성(凡聖)을 다 초월한 것이 평상심(平常心)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단상이란 단견과 상견을 말하는데 즉 사후에 영혼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상견(常見)에 많이 떨어진 것이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이 있는 것이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사람은 단견에 떨어진 것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천지 만물이 생기고 산하대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념(一念) 중에 욕계도 생기고 색계도 생기고 무색계도 생기고 범부도 생기고 성인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상은 부정할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道)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중도(中道)의 마음을 지니기가 어렵습니다.

도를 닦아 가는 사람은 마음속에 불평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보통사람들은 주변 환경이 좋지 않거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불만

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가 이 복잡하고 혼란한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이 모든 것이 복합된 상태가 이 사회인 것입니다. 그런 한 부분이 잘못되어 갈 때 우리는 정당한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뒤틀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불평불만을 담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속의 불평불만들은 다 평상심에 어긋나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또 무위나 유위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그것은 평상심이 아니고 조작된 것이며 오염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집착심이 없어야 평상심이 유지가 됩니다. 어느 곳에라도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취사의 마음이 생기며, 취사의 마음이 생기게 되면 마음의 평상심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평상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주 스님께서 '부처가 없는 곳에서 머물지 말고, 부처가 있는 곳에서도 멀리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가 아무리 좋고 거룩하다 하더라도 마음의 본원에서 보면 그것도 집착할 것이 못됩니다. 부처에서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조사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착(動着)하면 즉여삼십봉(卽與三十棒)이라' 즉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여 집착하면 바로 몽둥이 30방을 때리겠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집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평상심은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평상심은 모든 중생들의 본원이며 물들지 않은 청정한 마음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아무리 복잡하고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라 하더라도 맑고 청정한 마음인 평상심을 유지한다면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어쩌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평상심의 도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초록이 돋아납니다. 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담벼락에 영춘화 서너 송이가 핀 것을 보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적묵당 앞의 꽃밭에 복수초가 푸르디푸른 빛으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자연은 신비롭습니다.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새가 울며 모든 것을 생기 있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도 봄이 주는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즐겁고 희망찬 봄날 맞으시길 바랍니다.

– 불기 2558년 2월 초하루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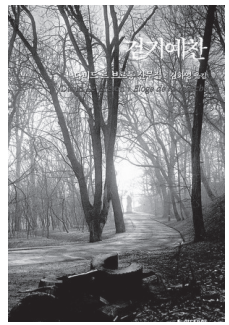
(2014년 3월 1일)

월곡 청소년센터 아동들과 함께하는 옥상 상자텃밭 가꾸기 활동

월곡청소년센터는 맑고 향기롭게가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입니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사업의 일환으로 옥상텃밭가꾸기를 월곡청소년센터 아동들과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여 자연의 신비함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농작물 재배를 통한 성취감과 나눔 활동을 통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넷째주 토요일 진행합니다.
내가 다니는 길가에 버려진 화분이나 큰 대야, 스티로폼 박스 등을 모아 월곡청소년센터 옥상이나 화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는 곳에서 텃밭을 가꿔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뤄진 텃밭에 꽃과 채소를 심어서 자연경관에 좋게 하기도 하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해결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센터의 아동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시간도 만들고, 이웃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자신이 심은 꽃과 채소도 기르고 아이들과 함께 삼겹살도 구워서 채소와 함께 먹으며 청소년 문제, 장래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부모의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자연사랑과 이웃사랑을 가르쳐주고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려줄 시간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 상자텃밭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안쓰는 고무 큰 대야, 채반, 플라스틱 화분 등을 사무국으로 보내주세요.

걷기예찬

다비드 르 브르통은 그의 산문집 〈걷기예찬〉의 첫머리에서 말한다.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 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 걷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몸으로 사는 것이다.'
〈홀로 사는 즐거움 중에서〉



법정스님의 저서 〈홀로 사는 즐거움〉에는 '걷기예찬'이란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비드 르 브르통 산문집 〈걷기예찬〉의 본문을 직접 인용하며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걸음걸음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일반 동물과 크게 다른 점은 꼿꼿이 서서 두 발로 걷는 기능에 있다고 인류학자들은 말한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사람들은 자동차에 너무 의존하면서 직립보행의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산에 들어와 살면서 나도 많이 걸었다. 행자 시절에는 미륵산에서 통영 시내까지 왕복 30리 남짓 자갈길을 걸망을 메고 장을 보아 날랐다. 50년대 중반 지리산 쌍계사 탑전에 살 때는 이따금 왕복 80리가 넘는 구례장까지 다녀오곤 했었다.
해인사 시절에는 몇 개의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고 다시 가파른 목통령을 건너 경북 금릉군에 있는 청암사를 찾기도 했다. 아마 50리도 넘는 산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통도사에서 살 때는 한여름 영축산을 넘고 재약산을 넘어 밀양 표충사에 가기도 했었다.
도로로 걷는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반드시 혼자여야 한다고 하나같이 주장한다. 왜냐하면 자유가 그 내재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걷는다는 것은 침묵을 횡단하는 것이다. 걷는 사람은 시끄러운 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상 밖으로 외출하는 것이다. 걷는 사람은 끊임없이 근원적인 물음에 직면한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순례자란 무엇보다 먼저 발로 걷는 사람, 나그네를 뜻한다. 순례는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고 단순하게 하고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털어낸다.」

다비드 르 브르통은 건강을 위해 걷기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걷기' 야말로 삶의 예찬이며 생명의 예찬인 동시에 인식의 예찬이라고 말합니다. 걷기를 즐긴 사람들 중에는 날마다 월든 호숫가를 걸어 다닌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젊은 시절의 장 자크 루소,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의 저자 피에르 쌍소, 방랑을 즐긴 시인 랭보, 걸어서 일본 각지를 여행하며 많은 시와 기행문을 남긴 하이쿠 시인 바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예찬〉에는 걷기의 중요성만을 강조하지 않고 걷기의 즐거움을 표현한 루소, 스티븐슨, 바쇼, 니코스 카잔차칸스며 소로우 등의 글들이 수록되어 있어 독자들은 즐겁게 따라나설 수 있습니다.

〈걷기예찬〉은 2006년 1월, 법정스님께서 '맑고 향기로운 책'으로 선정하여 회원들에게 책읽기 숙제로 추천한 책이기도 합니다.

불문학자 김화영 교수가 프랑스 여행길에서 감명 깊게 읽고 2001년 3월부터 월간 문예지〈현대문학〉에 10개월 동안 번역 연재한 후 이를 묶어 현대문학사에서 2002년 1월 출판하였습니다. 유려한 번역과 정성스레 가려낸 40여 컷의 흑백사진이 매력적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4월의 결연 대상자 - 이석연 어르신

요즘 어느 동네를 가든지 폐지를 줍고 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흔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무겁게 구르마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시간 많은 노인들의 여가 생활로서 안성맞춤이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들은 궁핍하지 않아도 평생을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살아온 자신의 관성에 따라 동네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폐지를 수집하고, 판매한 돈으로 막걸리 한 잔을 여유롭게 걸치는 분도 있습니다.

올해 86세를 맞은 이석연 어르신은 지난 겨울 내내 폐지를 수집하였습니다.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고 찬바람이 불어도, 미세먼지가 날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자신의 생업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에 누군가는 생을 달리하고 또 누군가는 치매나 중풍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고 다부진 체구를 가진 이석연 어르신의 허리는 언제나 꼿꼿합니다.

지팡이를 짚거나 유모차에 의지해 걸어야 하는 어르신들도 있지만 커다란 구르마를 끌고 다니는 이석연 어르신의 걸음은 사실 젊은이들보다도 빠르고 활기찹니다. 다만 추운 날씨에 매서운 바람을 많이 상대해서 얼굴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목장갑을 벗으면 손에도 오랫동안 고생해온 흔적이 역력합니다.

어르신에게는 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첫째 큰 딸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몸이 성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경기도 연천에 살고 있는 아들도 교통사고를 입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자궁암과 위암으로 투병하던 아내와는 15년 전에 사별하였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본이 되고 싶다는 생활신조를 가지고 있는 이석연 어르신은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기상합니다. 성북동 덕수교회에서 '하느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하고 매일 새벽예배를 올립니다.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빵도 사먹고 싶고 여러 군것질 거리가 눈에 띄지만, 연천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손녀와 8살 손자를 생각하며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곤 주머닛돈을 아낍니다. 명절이면 아들이 살고 있는 연천으로 가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녀와 손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처럼 고정적인 생계급여가 없기에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 생업 전선으로 나가야 하는 형편이지만 이석연 어르신은 결코 자신의 오늘 모습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산동네에 살고 있는 이석연 어르신의 집에는 지난 겨울에도 더운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몸이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불편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특히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부문화가 우리 사회의 성장을 측정하는 거울이 될 수 있도록 맑고 향기롭게 회원 및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거리캠페인 일정** : 4월 6일(일), 4월 27일(일) 성북동 길상사 경내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맑고 향기롭게)

홍보활동을 진행할 대학생, 일반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노인이 웃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동전모금 캠페인」

어릴 적 "엄마~ 10원만…… 으응~~~" 하며 엄마 치마폭에 매달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폐는 명절에나 겨우 한두 장 얻을 수 있었고, 평소 주머니에는 10원짜리 동전 한 두 개와 구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유수처럼 흘러 가버린 어릴 적 추억입니다. 지금은 동전을 가지고 다닐 일이 없을 정도로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하였지만, 누구나 한두 번은 동전의 소중함을 절감하셨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방송작가 김미라 씨의「나를 격려하는 하루」라는 책 내용 속의 하나로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동전을 모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알게 해주는 한 편의 글입니다.

「가난으로 나날을 보내는 여인의 집 앞에는 어느 날부턴가 주먹만 한 감자 세 개가 놓여지기 시작하더니 하루도 거르지를 않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어느 날 새벽, 그 고마운 사람이 이웃집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남편을 잃고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 속의 그 여인에게 있어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할아버지의 감자 세 개는 가족의 생명을 유지하는 소중한 양식이자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넉넉지 않은 생활형편에 살기가 빠듯했지만 항상 할아버지의 감자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한 끼 식사하는데 드는 3마르크를 나무 바구니에 저축을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아침식사를 대신하였습니다.

여인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무 바구니에 돈을 모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로 가서 그 나무 바구니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 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작가에게 전해진 실화라고 합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준 은혜를 잊지 않고 배고픔을 참아가며 3마르크 씩의 저축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던 여인의 맑고 고운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자비와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면 스스로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맑고 향기롭게 전국모임에서는 형편에 맞게 노인복지사업을 진행 중인데 특히 중앙모임에서는 독거노인 밑반찬&김장 지원사업, 난방비,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주모임은 평일 점심공양 나눔 및

도시락 배달을, 경남모임은 위안부 할머니 돕기 및 독거노인 결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모임과 부산모임 또한 독거노인 가정방문으로 반찬을 나눠드리고 노인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전국 회원 및 길상사 신도님들의 십시일반(十匙一飯) 동전 모으기를 전개하여 수익금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사회와 노인자살예방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노인이 웃는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동전 한 닢부터 나누는 생활 속 실천운동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빈자일등(貧者一燈)

맑은 만남(淸逢)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나누는 기쁨이 없다면 사는 기쁨도 없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나눌 것은 있다.

근원적인 마음을 나눌 때

물질적인 것은 자연히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나눔이란 누군가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갖는 것이다.

–법정(法頂)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6일로 다가왔습니다.

중생들의 구제를 위해 자비의 가르침을 펴신 부처님의 뜻을 따라 맑고 향기롭게 모임에서는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운동을 펼칩니다.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은 법정스님이 불일암에 머무르실 때부터 주창하신 나눔 운동입니다. 나 자신이나 내 가족, 친지가 아닌 우리 곁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을 위해 연등을 밝히자는 취지로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1995년에 처음 시작했던 운동이기도 합니다.

올해 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 운동의 취지는 본모임이 결연을 맺고 있는 재가복지사업 대상자중 어려운 형편으로 연등을 밝히지 못하는 불교신도를 위하여 자비의 연등을 밝히는 것이며,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의 동참금은 최소 10,000원이며 입금처는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입니다.

입금을 해주실 때 자신의 이름 옆에 '자비'라고 써주시면 자비의 연등 동참금으로 후원 처리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자비로운 세상을 위해서 많은 동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실크로드의 도시 로마로 팔려간 조선인 노예를 기억하자

글 • 백성스님(울산학춤 창시자)

실크로드의 시발지인 이탈리아 로마. 지금부터 4백여 년 전에 일본인에 의해 로마까지 팔려간 조선인 노예 안토니오 꼬레아의 실화가 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피렌체 출신의 무역상인 이자 토스카나 공국의 공직자였던 프란체스코 까를레티가 저술한 「나의 세계일주기」에 기록되어 있다.

1701년에 피렌체에서 발간된 이 책에 의하면, 정유재란이 한창이던 1507년에 부친과 함께 일본 나가사키항에 입항한 그는 30엔에 해당하는 12스키우드에 조선인 노예 4명을 매입한다.

그리고 이듬해에 그곳을 출항한 까를레티는 부친을 여의고 네덜란드 해적에게 나포되는 등의 온갖 시련 끝에 1606년 7월 12일에 조선인 노예 1명과 함께 고향인 피렌체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는 조선인 노예에 대해 이러한 기록으로 마무리 짓는다. "한 사람은 지금 로마에 살고 있으며 안토니오 꼬레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자칫 역사 속에 영원히 묻힐뻔한 이 책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도 대단히 드라마틱하다.

성공회 제3대 조선교구장인 트롤로프 신부가 동양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1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1930년 11월에 일본 고베항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해 트롤로프 신부가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 얼마 후 일본 역사학자 야마구치가 경성 정동교회에 방치되어 있던 방대한 장서를 열람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때 안토니오 꼬레아의 내용이 언급된 까를레티의 저서 「나의 세계일주기」를 발견한 야마구치 박사는 자신의 논문 「임란중 포로의 행방-조선인 노예 매매의 예」에서 안토니오 꼬레아의 존재를 최초로 발표한다. 이렇게 해서 조선인 노예무역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금년은 한국-이탈리아 수교 1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그래서 5월에 로마심포니가 내한공연을 하고, 가을에는 한식페스티벌이 밀라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경북은 작년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경주세계엑스포의 열기를 실크로드의 출발지인 로마까지 전개할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 4백여 년 전에 이탈리아 피렌체를 거쳐 로마까지 당도한 실존인물인 안토니오 꼬레아의 드라마틱한 스토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당시 유럽의 궁중화가였던 루벤스가 그린 초상화의 제목이 「코리언맨-안토니오 꼬레아」라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문화창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스토리텔링과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개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루벤스가 그린 코리언맨-안토니오 꼬레아

17C에 루벤스가 그린 채색 드로잉 작품이 1980년대에 영국 크리스티 경매장에 최초 출품되었을 때, 이 그림의 제목은 중세시대 태국의 관리를 의미하는 '삼대사'였다. 그 후 한국 복식전문가의 고증에 의해 '한복 입은 남자'로 바뀌었고, 이 그림을 매입한 미국 LA의 유명한 석유재벌인 폴게티의 재단에서는 제목을 최종적으로 「코리언맨-안토니오 꼬레아」

로 확정했다.

이처럼 기구한 스토리를 간직한 놀라운 그림의 주인공이자, 대단히 드라마틱한 책 속에 소개된 유일한 조선인인 안토니오 꼬레아를 통해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일본인에 의해 자행된 조선인 노예무역의 역사적 진실이다. 이제 날조된 독도의 역사를 주장하고 조선인 위안부의 존재마저 부정하는 일본 아베정부를 향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겼다. 그것은 임진-정유재란 기간 중에 일본인들이 저지른 조선인 노예무역의 만행을 널리 알리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국사교과서에 수록해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켜야 하는 일이다.

또한 4백여 년 전에 실크로드의 동쪽 끝인 한반도에서 태어나 실크로드의 서쪽 끝인 로마까지 건너간 역동적인 실화를 감동적인 문화콘텐츠로 개발하는 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와 아울러 4백여 년 전에 안토니오 꼬레아와 함께 마카오, 인도, 유럽 각국으로 팔려가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속박당한 채 짐승 같은 압제와 속박 속에서 살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조선인 노예들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일도 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 3월 27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이탈리아로 팔려간 조선인 노예 영령 추모행사'에서 사찰학춤을 통한 천도의식을 치렀다. 미국 LA돌비극장에서 개최된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을 수상한 스티브 맥퀸 감독의 영화「노예 12년」에 등장하는 흑인 노예들만큼이나 엄청난 폭력과 굴욕의 삶을 살았을 우리 선조들의 사무치는 한과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실크로드의 시대에 경주의 대외무역항이었던 울산도 정유재란 기간 중에 울산왜성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왜군들에 의해 우리의 수많은 선조들이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간 사실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단재 신채호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가슴 아린 시들

-박 준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글 • 서정민갑(대중음악의견가)

시를 읽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시집을 내도 안 팔린다더군요.

시집 초판 1,000권도 다 안 나가는 일이 다반사래요.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새로운 시를 얼마나 읽는지 생각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시들이 거의 10년 이상 된 옛날 시들일테니까요. 그렇다고 왜 시를 읽지 않는지 분석하고, 시를 읽으라고 채근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시 한 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너를
화구에 밀어넣고

벽제의 긴
언덕을 내려와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말을 건네는 친구에게

답 대신 근처 식당가로
차를 돌린 나는 오늘 알았다

기억은 간판들처럼
나를 멀리 데려가는 것이었고

울음에는
숨이 들어 있었다

사람의 울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통곡이 아니라

곡과 곡 사이
급하게 들이마시며 내는
숨의 소리였다

너는 오늘
내가 밀어넣었던

양평해장국 빛이라서
아니면 우리가 시켜 먹던
할머니보쌈이나 유천칡냉면 같은 색이라서

그걸 색(色)이라고 불러도 될까
망설이는 사이에

네 짧은 이름처럼
누워 울고 싶은 오늘

달게 자고
일어난 아침
너에게 받은 생일상을 생각하다

이건 미역국이고 이건 건새우볶음
이건 참치계란부침이야

오늘 이 쌀밥은
뼈처럼 희고
김치는 중국산이라

망자의 모발을 마당에 심고
이듬해 봄을 기다린다는
중국의 어느 소수민족을 생각하는 오늘

바람은
바람이어서
조금 애매한

바람이
바람이 될 때까지
불어서 추운

새들이
아무 나무에나
집을 지을 것 같지는 않은

나는 오늘

박준이라는 시인의 시입니다. 제목은 '오늘의 식단–영(暎)에게'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시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라는 시집에 담겨 있는 시인데요. 얼마 전 이 시집을 읽다가 몇 번이나 시집을 덮었습니다. 시가 그만큼 저를 자꾸 멈추게 했습니다. 이 시집이 대단히 강한 표현이나 센세이셔널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집의 목소리는 낮고 조곤조곤합니다. 정치적인 메타포도 없고, 아방가르드한 표현도 없습니다. 그저 시인이 경험했음직한 일상이 묵묵히 펼쳐질 따름입니다. 그 역시 드라마틱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먼저 보여드린 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가까운 누군가가 죽어 화장을 치루고 나와 밥을 먹으며 죽은 이에게 받은 생일상을 떠올리는 시인은 슬프다거나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곡과 곡 사이에 급하게 들이마시며 내는 숨소리를 생각합니다. 함께 있어 좋았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럼으로써 슬픔은 더 곡진해집니다.

시집에 담긴 시들이 거의 이렇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대신 시인은 그 순간의 풍경을 말로 그리듯 정갈하게 담아냅니다. 시집에 담긴 시들은 그렇게 말로 옮긴 사진들처럼 선명한 이미지들이 가득합니다. 그 순간들은 정겹고 따뜻하지만 어딘지 모를 슬픔과 쓸쓸함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차마 다 말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가슴에 묻어버리는 순간들을 시인은 섬세한 눈길로 끄집어내 우리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그 섬세한 눈길만큼 시인이 구사하는 말들 역시 참으로 시적입니다. 가령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라든가 '나의 사인(死因)은 너와 같았으면 한다' 같은 구절을 마주치면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서성거리고 머뭇거릴 수밖에요.

그리고 연을 자주 바꿔어서 행간이 많은 시들은 그 사이만큼의 침묵과 여백을 품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울림이 깊은 시들은 이 간격으로 인해 더욱 그윽한 울림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이 시집을 읽으면 그렇게 자신만이 알고 있는 삶의 어떤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기쁨이건 슬픔과 쓸쓸함이건 은근하고 사무쳤던 순간들을 호명하게 하는 시들은 결국 좋은 작품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좋은 작품이란 세상에 대해서건 자신에 대해서건 타인에 대해서건 지나치지 않고 더 깊게 들여다보게 하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주저리주저리 말을 덧붙이는 것보다 다른 시 한 편을 더 읽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슬픔은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시입니다. 이 밖에도 좋은 시들이 참 많은 시집입니다. 읽어보시길, 읽으시면서 자꾸 시간을 잃고 길을 잃으시길.

철봉에 오래 매달리는 일은
이제 자랑이 되지 않는다

폐가 아픈 일도
이제 자랑이 되지 않는다

눈이 작은 일도
눈물이 많은 일도
자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눈에서
그 많은 눈물을 흘렸던
당신의 슬픔은 아직 자랑이 될 수 있다

나는 좋지 않은 세상에서
당신의 슬픔을 생각한다

좋지 않은 세상에서
당신의 슬픔을 생각하는 것은

땅이 집을 잃어가고
집이 사람을 잃어가는 것처럼
아득하다

나는 이제
철봉에 매달리지 않아도
이를 악물어야 한다

이를 악물고
당신을 오래 생각하면
비 마중 나오듯
서리서리 모여드는

당신 눈동자의 맺음새가
좋기도 하였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독거노인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을 함께 펼칠 사회복지 및 NGO 활동에 관심이 많은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1. 모집대상
- 활달한 성격을 지닌 대학생,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월 2회 정기 자원봉사가 가능한 자

2. 활동내용
- 매월 마지막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월 2회)
  * 단, 법정 공휴일이 없는 달의 경우 첫째 일요일에 캠페인 진행
- 활동시간 : 오전 10시 ~ 오후 4시
- 캠페인 장소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경내
- 기타 : 인터넷 및 SNS를 활용한 캠페인 홍보 병행

3. 캠페인 목적
- 우리나라는 9년째 자살률 세계 1위 국가로 하루 평균 자살자수가 43.6명
- 노인자살률과 노인 빈곤률(각각 세계 1위)이 자살 문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진단된 상황
-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독거노인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조성
- 법정 스님의 청빈 가르침을 나눔의 기부문화로 계승
- 모집된 기부금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결연후원, 의료비 지원, 난방비 지원, 사례관리 등 사업비로 전액 집행

4. 접수
- 모집 인원 : 0명(남녀 구분 없음)
- 문의 :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02.741-4696)

뜰에서 배운 교훈

글 • 최미자(재미수필가)

누가 나에게 살아 온 삶을 묻는다면 살얼음을 밟듯이 조심스럽게 살아 온 나날이라고 말하겠다. 그런 내가 언제부터인가 정원에 나가면 활개를 치며 자신만만해진다. 처음엔 육체적 노동이 힘들어 아파트로 이사가 살면 편하겠다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자연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한없이 편안했다. 땀을 흘린 뜰에서 생산된 무공해 채소와 과일들을 조금씩 이웃과 나누어 먹는 즐거움으로 생각도 달라졌다. 맛도 다르거니와 노력하는 과정은 더욱 보람이었다.

땅을 파면 돈이 나오느냐며 남편은 가끔 나를 타박도 했다. 종종 허리를 다쳐 끙끙 앓는 내 꼴이 보기도 싫지만 두뇌로 쉽게 돈을 버는 게 낫지 않느냐는 현명한 그의 계산이었다. 하지만 해마다 자연이 주는 기쁨으로 남편의 마음도 변하더니 조금씩 뜰 일을 도와주었다.

살아가며 쌓이는 답답한 가슴을 털어놓을 수 있는 말없는 뜰은 으뜸가는 쉼터였다. 작은 꽃삽을 들고 조금씩 땅을 파며 나무를 심고 돌보아주니 얻는 이득도 많았다. 무엇보다도 연약했던 내 두 팔은 단단한 근육질이 되며 건강해져 갔다.

정원사를 부르면 쉽겠지만 내가 직접 나무를 자르고 디자인하는 작업 또한 창작예술이었다. 정원에서 땀을 흘리던 날엔 절약된 비용으로 외식도 한다. 나무 가꾸는 일을 시작한지도 10년이 지났기에 이젠 정원일에 달인이라고 생각했다. 아주 키가 높은 나무를 자르거나 힘든 일은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거의 나 홀로 즐기는 편이다. 그런데 얼마 전 사고를 쳤다. 짱구머리 모양의 미국 배나무 주변나무들이 너무 자라 햇볕을 가리고 있어 전지를 시작했다. 꾀꼬리처럼 고운 휘파람새의 노래 소리를 들으며 나는 무거운 가위를 들고 춤을 추듯이 싹둑싹둑 신나게 가지들을 잘랐다.

아차, 고개를 살짝 30도쯤 왼쪽으로 돌렸는데 무엇이 안경 밑 틈새로 비집고 들어 와 내 왼쪽 눈알을 후볐다. 끔찍한 순간이라 아찔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타원형의 새잎 눈이 달린 배나무 작은 가지였다. 엄청 놀라 집안으로 들어 와 거울을 보니 피는 보이지 않았다.

비싼 의료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거의 1년에 한두 번 가는 병원이었다. 슬프지도 않은데 눈물이 줄줄 흐르며 따끔따끔 아프기 시작했다. 물로 눈을 씻고 망설이다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안과 선생님이 보더니 제법 큰 상처가 각막에 생겨 있단다. 밤에 타이레놀을 먹고 자라고 권고했다. 가능하면 약을 먹지 않는 나였지만 통증으로 도저히 밤을 넘길 수가 없었다. 수면제가 섞인 타이레놀 한 알을 먹고서야 잠이 들었다. 바로 곁에는 가시가 달린 부겐빌라 나무도 있었는데 천만 다행이었다. 사고 날부터 하루 종일 흐르는 눈물과 콧물로 코까지 막혀서 감기 환자처럼 고생했다. 누가 만들었는지 고마운 항생제 안약이 나의 눈병을 악화되지 않도록 날마다 저지해주었다.

한국에 있는 안과 친구에게도 전화로 물어보았다. 시일이 지나면 각막은 재생되니 걱정 말란다. 얼마 전 김수환 추기경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남겨주고 간 선물은 각막이 아니던가.

너무 부지런 떨다가 다친 눈은 자신의 소중한 몸을 항상 조심스레 다루며 살아가라는 교훈이었다. 눈을 감고 쉰 일주일은 그동안 많은 일을 해주었던 눈에 대한 고마움을 새삼스레 돌아보던 날들이었다.

집안 제사 절에 모신 친정엄마의 뜨거운 눈물

글 • 이경숙(수필가)

"내가 이제 사는 일에 자신이 없다. 냉장고만 고장 나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남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운동 나가는 것도 그만뒀다."

철렁, 세상이 무너진다. 이 무슨 소린가. 모처럼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렸더니 이렇게 느닷없는 말씀을 하신다. 불현듯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는 반쯤은 넋이 나갔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망망대해에 홀로 남은 것 같은 막막함을 더 견딜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엄마에게 있어 손발이었다. 어디 가겠다고 하면 아버지가 오토바이에 엄마를 태워다 주고 볼일이 끝났다고 기별하면 다시 태워 오다 보니 혼자서는 아무데도 갈 줄 몰랐다. 그뿐 아니다. 복잡한 일들은 아버지가 다 해결하시다 보니 엄마는 은행에 가서 공과금 내는 일도, 통장에서 돈 찾는 일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 엄마에게 있어 아버지의 부재는 천형처럼 여겨졌으리라. 너희 아버지가 날 바보로 만들어놨구나. 한숨짓던 엄마 얼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엄마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굳센 신념이었다.

"나 아프면 너희들이 고생이지. 제대로 부모노릇도 못해 준 부모가 아파서 드러누워 있으면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시작한 운동이었다. 아침저녁으로 한 시간씩 매일. 10년 세월이다. 그런데 그렇게 굳세게 지켜오던 운동마저 끊었다. 엄마는 성격이 명랑하셔서 사람 사귀는 걸 즐기고 남에게 나눠주는 걸 좋아하여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다. 난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하셨던 엄마를 무너뜨린 것의 정체는 도대체 뭔가.

"내가 죽기 전에 제사나 산소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할 텐데……."

이 또한 자식들 욕 먹히지 않고 고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알아서 할 텐데 엄마는 당신이 손수 다 정리하지 않으면 형제들 간에 시끄럼이 날 수 있고 여차하면 자식들을 욕먹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처리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런데 그 날이 생각보다 빨리 왔다. 엄마가 그렇게 쉽게 용단을 내린 건 며느리의 한 마디 때문이었다.

"어머니, 저도 명절 연휴 때 어디라도 가고 싶어요."

친정과 가까운 곳에 사는 둘째 올케는 보기 드문 효부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아이들 데리고 와서 엄마와 함께 지내고 시간 나면 하루씩 이틀씩 자고 갈 때도 많다. 홀로 된 시어머니 외로워하실까 봐서다. 제사나 명절 때면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미리 와서 준비하고 군말 없이 도리를 다했다. 그런 며느리가 명절 때라도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다는 속내를 내비치자 엄마는 당신이 그동안 마음속으로 준비해왔던 것들을 즉시 실행에 옮겼다. 올케는 명절이 아니라 명절 이틀 뒤에 있는 할아버지 제사 때문에 명절 연휴에도 꼼짝할 수 없는 게 힘들었던 모양이다.

설을 쇤 엄마는 아버지 제사만 빼고 40년 동안 지내오던 집안의 모든 제사를 모두 절에 모셨다. 그건 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반란이자 사고였을 것이다.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고 돌아오신 다음, 엄마는 며칠 동안 신열을 앓았다.

"40년이다. 너희 아버지가 자주 성질을 부려 속상할 때 많았지만 제사 지내는 일이 힘들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아버지는 제사에 무심한 큰집 식구들을 용납하지 못해 자주 화를 내곤 하셨다.)

막내며느리였다. 하지만 큰어머니들이 종교적 이유로 제사 모시기를 거부하자 엄마는 그 제사를 냉큼 받아와 신주단지 모시듯 그렇게 갖은 정성을 다해 모셨다. 그랬던 분이 그것들을 한꺼번에 정리했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 싶다.

그때부터였다. 엄마가 시름시름 무너지기 시작한 건.

"이젠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할 일이 없다는 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닌가. 제사 좀 모시지 못한다고 그렇게까지 낙심하는 엄마를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오랜 세월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아왔기 때문에 뭐라고 통박할 수도 없다. '세월가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한 엄마는 영영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쓸모라고는 없는 사람이 운동은 해서 뭐하냐'로 시작된 낙심이 '남들이 얼마나 오래 살고 싶어 날마다 기를 쓰고 운동하냐'고 할까봐 10년 동안 해오던 운동마저 그만 둬버렸다. 냉장고만 고장 나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혹여 아플까봐 걱정이 되고. 나 아프면 너희들에게 미안해서 어쩌냐? 걱정인지 한탄인지 모를 말씀들을 하시다가 종국엔 소리 죽여 흐느끼신다.

"엄마, 사람이 늙으면 아프기도 하는 거지. 뭐가 걱정이야? 엄만 우릴 여덟이나 키웠잖아? 그러니까 이젠 아파도 돼. 그래도 자식이 많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고생도 여덟이서 나눠 할 것이니 남보다 덜 힘들 테고, 병원비도 여덟이서 나눠 내면 별것도 아닐 텐데 왜 그런 것까지 걱정해?"

갑자기 삶에 대한 의욕과 용기를 잃은 엄마는 이제 별별 걱정을 다하신다. 자식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서로 좋지만 아니면 어떤가. 부모는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 부모로서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니던가.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게 뭐 있냐. 해준 게 없어도 상관없다. 열 달 동안 우리를 뱃속에 품고 세상에 내주신 분이 아닌가. 젖을 먹이고 한 숟갈 한 숟갈 밥을 떠먹여 주었으며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이만큼 사람노릇 할 수 있게 길러주셨으니 늙고 병들어 아기가 되어도 기꺼이 수발을 들어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친정엄마에게 있어 제사는 당신을 지탱시켜준 근간이었던 걸까. 아니면 엄마 일생의 가장 큰 과업이었거나. 조만간 집안 제사를 모두 모시고 와야 할 종손며느리로서 엄마가 겪고 있는 갈등과 슬픔이 예사롭게 보이질 않는다.

2014년 숲기행 안내

1. 주제 : 숲과 문화 "숲과 어우러진 삶의 문화를 찾다."

*** 일반인과 함께하는 숲기행**

4월 5일 : 경남 하동 쌍계사&섬진강 일대
5월 3일 : 경남 청도 운문사&솔숲
6월 7일 : 강원도 평창 월정사&전나무 숲길
9월 13일 : 경남 통영 미래사&생태섬
10월 4일 : 경남 양산 통도사&반구대 암각화 유적지
11월 1일 : 전남 순천 송광사&거석문화유적지(봉사자 참여)

2. 참가방법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65세 이하
- 접수 : 숲기행을 다녀온 후 월요일부터 전화 접수
- 준비물 : 점심, 식수, 간식, 모자, 등산화 필수, 돋보기, 필기구 등
  (날씨를 꼭 확인하여 비 올 가능성이 있는 날에는 우비 준비)
- **참가비(확정가) : 회원 35,000원**
  비회원 40,000원
- 입금처 : 외환은행 301-22-00270-1 예금주 : 맑고 향기롭게
- 신청 전화 주실 때 : 이름 ,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여행자보험용)를 꼭 알려주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전화 문의하세요.
- **문의처 : 중앙모임 02-741-4696**

무상교육에 사교육도 경쟁도 등수도 없는 나라? 우리는!

글 • 김용택(교육칼럼니스트)

"유치원부터 대학교는 물론 박사까지 돈 내는 건 없습니다. 식사에서부터 교과서, 각종 교육보조 재료까지 대부분 무료예요. 대학생의 경우 월 250유로 정도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차비도 하고, 책도 사보고, 때론 맛난 것도 사먹고 하지요."

핀란드 노총 Pekka Ristela 라는 분을 인터뷰한 기사 내용이다.

Pekka Ristela가 등수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반문했다. "등수라고 하셨나요? 등수가 뭔가요?"

기자가 가까스로 등수를 설명해 주자 "학교가 시험을 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등수는 왜 가리나요? 시험을 치는 이유는 학생이 해당 과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을 보았다고 합시다. 시험 결과가 곱셈은 잘하는 데 나눗셈은 못한다고 나왔다면 나눗셈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돕느냐가 선생님과 그 학생의 과제가 되겠죠."

"체육시간 달리기 외에는 '경쟁'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핀란드 교육. 성적표라는 것을 "받아보기는커녕 들어본 적도 없다."는 핀란드는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핀란드가 '국제학력평가(PISA)' 1위, 세계경제포럼 성장 경쟁력지수 1위, 청렴도 1위라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컴퓨터를 끄고 켤 수만 있는 사람이라면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핀란드뿐만 아니다. 교육천국으로 알려진 쿠바는 물론이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다.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에서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있는가 하면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 원 정도씩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 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캐나다도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지만 돈이 없어 대학에 못 다니는 학생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가?

'등록금 천만 원 시대, 신용불량자 양산소 되어버린 대학교'

이제 이런 소식은 이슈거리도 되지 않는다. 대학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명 중 8명(74.5%)꼴. 현재 대학 재학생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은 54만 명(21.3%)으로, 5명 중 1명꼴이다. 아르바이트 학생 중 법정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사람이 17만 명(31.9%)으로, 3명 중 1명으로 최저임금법 사각지대에 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33.2시간이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한 달 일해 받는 월급은 평균 89만 원 정도다.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의 6%를 차지하고 고등학생의 80%가 과외를 받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과외비로 수리과목은 한 달에 170만 원, 나머지 과목은 100만원씩, 학생 한명이 많게는 월 1000만원씩 과외비로 지출하는 가정도 수두룩하다. 아이 한 명을 낳아 키우는데 4억 원, 연간 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는 나라. 학령기 학생 713만 명 중 4%인 28만 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 지구상에는 교육을 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상품이란 '투입 산출'이라는 공식이 적용돼 투자한 만큼 이윤을 발생하도록 만들어진 구조다.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교육, 승자 독식구조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게 된다. 돈이 많은 부모의 자녀가 양질의 교육을 받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 일류대학을 몇 명 더 입학시켰는가의 여부가 명문학교가 되고 개인도 학교도 지역도 서열화된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무한 경쟁이 사교육과 선행학습 등 온갖 경쟁적인 편법이 동원되는 교육 그게 신자유주의 교육관이다.

이에 반해 앞에서 예를 들었던 북유럽을 비롯한 여러 교육선진국들은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본다. 장차 나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을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것이다. 공공재란 물과 공기처럼 교육을 특정세력이 독점하거나 대물림할 수 없다는 관점이다. 국가는 학력기의 모든 청소년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도록 기회를 균등히 주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교육을 해야 할 학교는 입시준비를 하는 학원이 되고 사교육이 인성교육을 한다는 얘기도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육을 살리겠다고 정부가 내놓는 처방은 보면 하나같이 백약이 무효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며 내놓은 온갖 처방이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이다. 입시 제도만 해도 그렇다. 지난 46년간 동안 무려 38번이나 입시 제도를 바꾸고 대학입시전형 방법을 3,298가지나 만들어 내놓았다.

2003년부터 교육과정을 무려 9차례,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까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폭력 근절을 위해 교내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학교지킴이 등 온갖 대책을 내놨지만 달라진 게 없다. 교육의 질을 높인다며 학교평가도 모자라 교원평가까지 도입했지만 학교교육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열이 나는 환자라고 무조건 해열제를 처방한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다. 교육부의 교육 살리기 대책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문제의 원인을 두고 지엽적인 처방을 대책이라고 내놓으니까 그렇다. 사교육비 때문에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면 일류대학은 그대로 두고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든다.

학교폭력이 심각해지자 폭력의 원인을 찾지 않고 가해자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상급학교진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학교평가 점수에 반영해 예산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그래도 폭력이 줄어들지 않자, 이번에는 폭력학생들을 따로 모아 공부를 시키겠다며 '위스쿨'이니 '꿈키움학교'까지 만들고 있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가 입시교육이 아닌 교육과정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것은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보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길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한 그 어떤 대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없다.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기는 무한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소질과 특기를 살리는 여러 줄로 세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길러내는 교육으로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소금 만드는 노인 〈고창 · 선운사〉

글 • 최정희(불교 언론인)

옛날 백제시대.

선녀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는 선운산(현 도솔산, 전북 고창군 아산면) 기슭 선운리 마을에는 가끔 산적과 해적들이 나타나 주민들을 괴롭혔다.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면 나눠먹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우면서 오손도손 살고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도적떼였다.

「도적떼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야지.」

마을 사람들은 걱정만 할 뿐 별 대책 없이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웬 낯선 영감님이 나타나 촌장을 찾았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떠돌아다니면서 소금과 종이를 만들어 연명해 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 마을이 소금을 굽고 종이를 만들기에 좋을 것 같아 발길을 멈췄으니 오늘부터 마을 입구에 움막을 짓고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비록 허름한 차림새였으나 인자하게 생긴 노인인지라 마을에선 쾌히 승낙했다.

노인이 인근 해변에 나가 바닷물을 퍼서 소금을 만들 때면 마을 사람들은 따라가서 일을 거들며 소금 만드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아는 것이 많은 할아버지를 자연 따르게 됐고, 노인은 친자식이나 손자를 대하듯 늘 친절하게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산적들이 나타났어요.」

산적들은 벌써 움막으로 들이닥쳤다.

「음, 처음 보는 영감이로군. 목숨이 아깝거든 가진 것을 모두 내놓으시오.」

「보시다시피 나는 가진 것이라곤 소금밖에 없소.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갖고 가시오.」

산적들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노인의 태연한 모습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 저희들끼리 쑤군대면서 소금을 한 짐씩 지고 갔다.

마을은 얼마간 평화로웠다.

「할아버지, 바다 한가운데 이상한 배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해적이 왔느냐?」

「아니어요. 사람 기척이 없는 빈 배여요. 사람이 보이면 물속에 잠기고 사람이 숨으면 물 밖으로 솟아나오는 이상한 배가 나타났어요.」

노인이 바닷가에 다다르자 배는 노인을 향해 다가왔다. 동리 사람들은 눈이 둥그레졌다.

「사람을 보면 숨던 배가 이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노인은 그 배의 뜻을 아는 듯 배에 올랐다. 그때 하늘에서 음악소리가 울리면서 백의동자가 나타났다.

「할아버지! 저는 인도에서 공주님의 심부름으로 두 분의 금불상을 모시고 이곳에 왔습니다. 공주님께서는 동쪽 해 뜨는 나라의 소금 만드는 할아버지에게 이 불상을 전하고 성스런 땅에 모시게 하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노인은 선운리 마을에 조그만 암자를 세우고 동자가 전해 준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을 모셨다.

노인은 그날부터 염불에 열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둑들은 다시 노인을 찾아와 소금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거 참 안됐구려. 나는 요즘 불공을 올리느라 소금을 만들지 못했다오.」

「그래, 그렇게 부처님만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밥이 나옵니까? 옷이 나옵니까?」

도둑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자 불만스럽게 투덜거렸다.

그때였다. 어디선가「어흥」하며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놀란 도둑들은 손에 든 창과 칼로 호랑이를 위협하려 했다.

이때 염불을 하던 노인은 한 손으로 호랑이를 어루만지면서 돌아갈 것을 권했다. 그러자 호랑이는 노인 앞에 공손히 절을 하더니 어슬렁어슬렁 산으로 올라갔다.

이 광경을 목격한 도둑들은 노인이 예사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알아 뵙지 못하고 무례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도둑들은 엎드려 절을 하면서 새 사람이 될 것을 맹세했다.

「이 시각부터 남의 물건 훔치는 일을 그만두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이니 저희들에게 새 삶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노인 어른.」

「거 참 반가운 일이군요. 잘 생각하셨소. 내 오늘부터 소금 만드는 법을 일러줄 터이니 열심히 배워 착하게 살도록 하시오.」

노인은 해적들에게 소금 만드는 법을 일러줬다. 이 소문을 들은 선운산 도적들도 마을로 내려와 노인에게 참회하며 착하게 살 것을 맹세했다. 산적들에게는 종이 만드는 법을 알려 주면서 거처인 굴속에서 부처님께 예불하며 참회하는 불자가 되도록 가르쳤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할일을 다했으니 가 봐야지.」

노인은 마을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동리 아이들까지 울면서 매달렸으나 소용없었다.

「정 가시려면 이름이나 알려주시지요.」

「늙은이가 이름은 무슨 이름…. 난 검단(黔丹)이라 하오.」

「아니, 할아버지가 바로 그 유명한 검단 스님이시라고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특히 전날의 도둑들은 그제서야 노인의 뜻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깎고 출가할 것을 결심했다. 그 후 선운사는 89개의 암자와 1백89동의 요사채, 24개의 굴이 있는 대가람이 되었다.

1954년까지 고창군 심원면 고전리 부락에는 검단선사 이후 불을 때서 소금을 만들던 흔적이 있었는데 46년 삼양염업사에서 그곳에 염전을 만들었다. 그 후 삼양염업사에서는 매년 봄 · 가을이면 선운사에 소금을 기증하고 있다.

녹색나눔장터 참여 및 진행하실 분을 찾습니다.

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이웃과 나누고, 버려진 옷을 이용한 재활용 리폼 및 회원들과 길상사 신도들이 직접 참여하는 벼룩시장, 금강경 독송회에서 참여하는 우리 농산물로 펼쳐지는 '맑고 향기롭게 2014 녹색나눔장터'가 3월 30일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개인적으로 벼룩시장에 참여하시는 분은 수익금의 20%를 본모임으로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후원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장터를 함께 진행하고 도움주실 분을 찾습니다. 장터에 나온 물건들을 판매하고,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함께해줄 봉사와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성북구 '저소득 자녀와 함께하는 천연화장품 만들기 교실' 안내 및 봉사자 모집

10대 청소년들이 공부 다음으로 고민거리로 꼽는 게 있다면 단연 '피부 고민'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작은 뾰루지에도 민감한 시기인 만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관심과 현명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기 여드름은 제때 관리해주지 않으면 흉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정확한 정보 없이 화장품을 남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분비가 활발한 청소년기는 피지 분비가 왕성해 성인용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일례로, 연약한 청소년들의 피부에 성인용 파운데이션이나 블러셔, 아이라이너 등을 사용하면 자극이 강해 여드름과 같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피지 분비가 많은 상태에서 두껍게 화장을 하면 피지의 원활한 배출을 방해해 여드름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성 사인펜이나 쌍꺼풀 테이프, 쌍꺼풀 만들기 풀 따위와 같은 도구들로 화장을 대신하기도 해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피부가 늘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가장 좋은 피부 관리는 잠깐 동안 예뻐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이 아닌, 자외선 차단과 올바른 세안, 유·수분 균형 맞추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색조 화장품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화학성분이 들어가지 않아 피부에 전혀 자극을 주지 않는 천연화장품을 사용하여 촉촉하고 맑은 피부로 관리해주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화장을 하지 말라고 막기보다는 화장에 대한 기초 지식을 부모가 가르쳐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피부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값싸고 질 낮은 제품이 아닌 자신에게 알맞은 제품을 골라 올바르게 화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하고 제대로 된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4월부터 12월까지 '마가렛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월곡청소년센터 어린이&청소년', '탈북 어린이 생활공동체 우리집'과 연계하여 천연화장품 만들기 교실을 운영합니다.

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찾아가거나, 길상사 소모임방에서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매주 수요일 천연화장품 강좌 시간 변경 안내

올해 새롭게 진행하는 월곡청소년 공부방 아동, 중고등학생들과의 옥상텃밭 가꾸기 활동으로 인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매주 수요일 천연화장품 강좌 시간을 5월부터 오전 10시로 변경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천연화장품 특별강좌 안내

- 4월 30일(수) 오후 1시 30분 – 한방 녹차 스킨 만들기
- 10월 29일(수) 오후 1시 30분 – 수분크림 만들기

의류 리폼 함께 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의류리폼봉사모임은 생활 속에서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청바지, 한복 천,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녹색장터를 통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단이나 디자인에 소질이 있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의류 리폼봉사는 매주 화요일 오후 진행됩니다.

결식이웃 밑반찬 조리봉사 함께해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2가지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이 활동은 봉사자끼리 서로 웃어가며 함께하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고 하십니다. 차가운 날씨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나눠주실 분은 언제라도 전화주세요.

노인요양원(진인요양원, 묘희원) 자원 활동 안내

진인요양원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놀이 활동을 합니다.(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함께 출발) 묘희원은 농사일 돕기와 시설 정비 활동을 주로 합니다.(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한전 남부지점) 앞에서 모여 함께 출발)/동참하실 분은 사전에 사무국으로 상담해주셔야 합니다.

전화 한 통화가 외로운 분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고독사'가 어느새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고독사의 문제는 그들이 죽을 때 외로웠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살아 있는 내내 외로웠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무연사회(無緣社會)란 사회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약화되고 인연(因緣)이 끊어진 사람들이 증가하는 사회를 말하는데요.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부패한 냄새로 자기 죽음을 세상에 알렸던 60세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을 때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본 모임의 전화말벗 자원 활동은 6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무연시대에 아주 적절하고 중요한 활동이라 판단됩니다. 매주 한 통

화의 안부 전화로 외로운 분들에게 희망을 나눠줄 봉사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나눔의 기부문화 '아름다운 마무리' 대학생, 일반인 봉사자 모집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연속 9년째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자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행복 바이러스를 널리 전파하는데 동참해줄 활달한 성격을 가진 대학생, 일반인 봉사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2014년 정기 이사회, 대의원 총회 보고

2014년 정기 이사회를 1월 25일, 대의원 총회를 2월 21일 오후2시 길상사 설법전 회의실과 소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각 지역모임의 2013년 사업보고·결산, 2014년 사업계획·예산, 법정스님 인세에 대한 공익목적 활용안(맑고 향기롭게 브랜드 포교를 위한 심볼 디자인 상품개발, 지역모임 자립과 활성화 방안), 이레 출판사 미수금 해결방안(이레에서 출간한 저서를 군부대 내의 책 읽는 독서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도서를 국군문화진흥원에 기증)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대전모임의 이평래 본부장, 현미순 총무님의 사임을 승인한 후 활성화될 때까지 직할운영하는 것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정관 17조, 40조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회계연도 수입·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 계좌를 대조, 검토한 결과 금액 및 증빙자료가 일치하여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았습니다.

군부대 도서문화 정착을 위하여 도서를 기증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발생한 이레출판사 파산으로 인한 미수금(장부 미계상) 해결방안으로 이레에서 출간하여 압류된 저서(수호천사, 철의 제왕 김수로 등 11종)를 본모임으로 귀속한 후, 군부대 내의 책 읽는 독서문화의 정착을 위한 공익목적사업으로 국군문화진흥원에 총 26,367권을(정가 327,381,600원) 지난 3월 20일 기증하여 기부금 영수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 장학 대상 : 전국 고등학생(30명 내외)
- 장학 기간 : 1년(분기마다 각 학교 장학금 통장으로 입금됨)
- 장학 내용 : 학비 전액
- 장학생 선정 발표 : 2014년 4월 4일(금)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학교로 연락
- 장학증서 수여식 : 2014년 4월 18일(금) 길상사 소강당

▶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www.clean94.or.kr) 공지 참조
▶ 문의처 : 02)741-4696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재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시 후원

식구 중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맞이하여 기쁨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은 부담되는 경우, 회원은 아니지만 본모임 활동이나 뜻을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계좌로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본회 회원이 아니신 분은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인적상황이 필요하므로 후원 전, 후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시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문의 : ☎02)741-4696~7

4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발송 우편작업/3일(목)/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밑반찬 조리 자원활동/목, 금요일(3,4,17,18,24,25일)/김치(10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좋을 일복 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

동/매주 월요일(7,14,21,28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 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활동/둘째, 셋째 일요일(13,20일)/오전 9시30분~12시/청소년 봉사자
- 묘희원(치매노인 요양시설)/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활동/첫째 일요일(6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활동가
- 진인노인 요양원/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둘째 일요일(13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2,9,16,23(수)오후 1시 30분(샴푸, 로션, 에센스, 한방비누)/세계일화실, 비누는 맑고 조리장/선착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매주 화요일 오후 2시/세계일화실
- 녹색나눔장터/4월 27일(일)/길상사 경내

대전모임 (중앙직할)

- 자혜원(고아원)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충남대 대불련 지원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대구모임 (053-753-8883)

4월 정기 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 수시모집
- 토요경로급식 및 웃음교실/매주 토요일/9시부터 음식조리, 2시 마무리
- 룸비니동산(장애아동 보호시설) 자원봉사 활동/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3~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케어, 빨래, 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매월 첫째 화요일 11시부터
- 운영위원회의/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4월 정기 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활동-매월 셋째 주 수요일/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활동-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창원 사파복지회관 내식당/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5시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재현이네와 10가구)-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쌀, 밑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질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구입문의 ☎(055)266-0170
-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만들기/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오후 1시 30분/재료비 22,000(수강료 없음)/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4월 정기 활동 안내

- 도시락 나눔활동 - 매주 월요일~금요일/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활동
- 공양 나눔 센터 - 매주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정기 독서모임 : 매월 둘째 수요일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4월 정기 활동 안내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매주 수요일/0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르신 목욕
  매주 목요일/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매주 목요일/09:30~13:3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동목욕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09:30~13:3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매주 금요일/09:30~12:00
- 매월 셋째 화요일-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목요일-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주 수요일 부산진구 독거노인 밑반찬봉사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다라니기도
- 일시 : 4월 5일 (오후 8시~10시)
- 염송다라니 : 신묘장구대다라니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무료

시민선방 철야정진
- 일시 : 4월 12일 오후 9시~
  4월 13일 새벽 4시
- 장소 : 길상선원
- 법사 : 주지스님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4월 12일 오후 8시 30분 ~
  4월 13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준비물 : 물병, 수건, 좌복보호대

4월 주말 선 수련회
- 일정 : 셋째 주말 19일(토)~20일(일)
  넷째 주말 26일(토)~27일(일)
- 참가비 : 7만원(입금순 50명 선착순 마감)

'부처님 오신 날' 연등접수 안내
갑오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초파일 연등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종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날 연등행렬 참가 안내
자비의 등불이 온 누리에 퍼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연등행렬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 일정 : 4월 26일(토요일) 오후 6시
- 장소 : 종로거리

연등 달기 운력 도움주실 봉사자 모집
길상사 경내에 환히 밝힐 연등을 밝히기까지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연등과 연등표를 다는 일에 도움주실 신도님께서는 종무실로 연락주세요.

5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5월 3일	오후 7시	극락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5월 6일	오전 9시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5월 10일	오후 9시	길상선원
삼천배 철야정진	5월 10일	오후 8시30분	극락전
춘계관음기도 회향	5월 12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하안거 결제 법회	5월 13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백중아미타기도입재	5월 13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지장재일	5월 16일	오전 9시50분	지장전
관음재일	5월 22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5월 29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50분/ 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50분/ 저녁 7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소강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침묵의집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합창단 정기법회	매월 넷째 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새신도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

중생들을 모두 깨달음에 이루게 하겠노라는 서원과 함께 속세로 오신 부처님처럼 나의 마음과 내 가족의 행복은 물론이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훼손되고 오염되어 죽어가는 뭇생명들을 위하여 연등 하나 환히 밝히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 길상사에서는 길상음악회를 통해 인간의 탐욕과 식탐으로 인하여 살처분이란 이름으로 동물들에 대한 무차별적 죽임이 난무한 가운데, 반성과 공생의 의미로 세상과 자연을 가꾸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오니 연등 하나,
꼭 내 손으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뭇생명과 함께하는 길상음악회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는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동체대비의 사상을 기원하는 길상음악회가 열립니다.

- **일정** : 5월 6일(화) / 저녁 7시
- **장소** : 길상사 극락전 뜨락

길상사 연등 접수 받습니다

법당 가족등 | 법당 영가등 | 도량 가족등 | 도량 영가등

문의 : 길상사 종무실(02.3672-5945)

2014년 4월 1일(매월1회) **발행** · **통권** 230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서울라08708호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136-022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 길상사 내
☎02)741-4696